

Next Energy

중국, 세금 우대도 리튬에서 소듐으로



주간 주요 기업 주가 변동

- **배터리:** CATL(-5.8%), BYD(-5.1%), SK 이노베이션(+4.7%), Fluence(-4.1%)
- **원자력:** 두산에너지빌리티(+14.6%), Centrus(-12.4%), Nuscale(-11.2%), Cameco(-4.0%)

배터리 면세 시대 종료

중국의 배터리 세제 정책이 바뀌고 있다. 2026년 9월부터 중국 내수용 리튬이온 배터리에 2%의 소비세가 부과되고, 2027년 9월에는 4%로 올라간다. 반면 소듐이온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 연료전지는 2028년 말까지 면세가 유지된다. 배터리 수출에 적용하던 부가가치세(VAT) 환급률은 2026년 4월 9%에서 6%로 낮췄고, 2027년부터는 환급을 폐지할 예정이다. 내수에서는 소비세를 부과하고, 수출에서는 세금 환급을 줄이는 방식으로 리튬이온 배터리에 제공했던 세제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내수 시장에서 2%는 작아 보여도 부담은 무시하기 어렵다. 중국 배터리 업계는 공급과잉과 가격 경쟁으로 수익성이 낮아진 상태다. 기존 장기계약에 세금 변화가 반영돼 있지 않다면 초기에는 셀 업체가 비용을 먼저 부담하고, 이후 완성차 업체와의 가격 협상을 통해 일부를 나눠 가질 가능성이 높다. 가격 협상력과 원재료 조달 능력이 떨어지는 중소형 업체일수록 부담이 크며, 2027년 세율이 4%로 높아지면 업체 간 수익성 격차도 확대될 수 있다. 배터리 사용량이 많은 BEV와 대규모 ESS도 상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다.

반대로 소듐이온은 면세가 유지되어 LFP 대비 유리하다. 세제 차이만으로 LFP를 빠르게 대체하기는 어렵겠지만, CATL, BYD 등 대형 업체의 하반기 양산이 확대되면 생산량 증가에 따른 원가 하락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번 정책은 중국이 배터리 지원을 줄이기 보다 리튬이온 배터리 산업에 대한 보편적 지원을 걷고, 차세대 기술에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단기적으로는 리튬이온 업계의 수익성 차별화가 커지고, 중장기적으로는 소듐이온과 전고체가 상용화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간 주요 뉴스

한국수력원자력, 佛 오라노와 LOI 체결

8 일(현지시간) 프랑스 오라노(Orano)와 우라늄 농축 분야 장기 협력을 위한 LOI를 체결. 러시아산 제재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핵연료 공급망 다변화 기대

한국전력, 5년간 송배전망 55조원 투자

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첨단 산업의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6~2030년간 송변전 33조배전 22조를 투자할 계획

한전기술, 포스코에너지와 원자력 기술개발 협력

원전 사업 기술개발 협력을 위한 MOU 체결. SMR, HTGR 등의 분야에서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협력 강화

대미투자프로젝트 1호 발표 임박

원자력 발전소 8기, 천연가스 프로젝트 등을 포함한 약 1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합의에 임박, 이르면 이번주 발표 전망

주간 지수 및 기업 시가총액 변화

(₩ 조원, 십억달러)	RECENT	증감(%)
KOSPI	6,910	▲3.3
KRX 2차전지	3,663	▼0.1
KRX 유틸리티	941	▲3.3
LG 에너지솔루션	84	▲0.4
삼성 SDI	44	▼0.5
SK 이노베이션	24	▲4.7
LG 화학	19	▼3.2
포스코퓨처엠	16	▲0.9
두산에너지빌리티	58	▲14.6
Tesla	1,443	▲3.2
CATL	232	▼5.8
BYD	106	▼5.1
Fluence	2	▼4.1
Nuscale	4	▼11.2
Centrus	3	▼10.2
Cameco	42	▼4.0

도표1. 월간 EV 판매량 추이

(천대)		26.07	26.06	25.07	MoM(%)	YoY(%)	1Q26	2Q26	QoQ(%)
글로벌		1,496	1,710	1,181	(12.5)	26.7	3,182	4,525	42.2
지역별	중국	975	1,025	744	(4.9)	31.0	1,722	2,749	59.6
	아시아	146	154	80	(5.4)	81.3	360	415	15.2
	서유럽	186	240	118	(22.5)	57.8	487	578	18.6
	북미	89	92	136	(3.8)	(34.9)	253	286	13.1
브랜드별	폭스바겐	64	79	80	(19.1)	(20.3)	191	221	16.1
	GM	12	13	22	(5.2)	(43.7)	33	43	31.6
	테슬라	166	221	144	(24.9)	15.1	461	553	20.0
	BMW	34	45	39	(24.9)	(13.4)	93	115	23.4
	현대기아	58	62	48	(6.2)	21.1	143	179	25.5
	BYD	278	259	205	7.3	35.9	429	702	63.7
서유럽	폭스바겐	45	47	35	(5.2)	26.3	118	126	7.4
	GM	0	0	0	(75.0)	(96.8)	0	0	(60.0)
	테슬라	4	33	5	(89.1)	(22.3)	47	55	15.9
	BMW	19	22	15	(13.3)	31.7	39	52	34.4
	현대기아	17	17	10	1.4	65.3	36	45	25.3
	BYD	8	10	5	(20.3)	55.1	23	26	11.0
북미	폭스바겐	1	2	12	(29.7)	(89.3)	4	6	32.7
	GM	8	9	19	(16.2)	(60.4)	26	31	19.3
	테슬라	43	45	48	(3.2)	(10.4)	117	125	6.4
	BMW	2	2	4	2.6	(46.2)	5	7	30.6
	현대기아	7	6	12	28.3	(40.5)	18	22	22.3

자료: MarkLines,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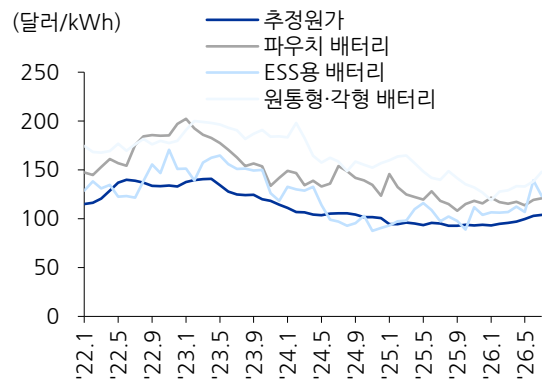
주: EV Only, 서유럽은 5 개국(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기준

도표2. 월간 전력통계속보

	26.06			26.05			MoM(%)		
	전력판매량 (GWh)	전력판매수익 (W bn)	평균판매단가 (W/kWh)	전력판매량 (GWh)	전력판매수익 (W bn)	평균판매단가 (W/kWh)	전력판매량 (GWh)	전력판매수익 (W bn)	평균판매단가 (W/kWh)
합계	43,269	7,580	175	40,931	6,495	159	5.7	16.7	10.4
주택용	6,617	1,031	156	6,061	914	151	9.2	12.8	3.3
일반용	11,130	1,944	175	9,801	1,578	161	13.6	23.2	8.5
교육용	729	111	152	601	80	134	21.4	37.8	13.5
산업용	22,675	4,279	189	22,387	3,710	166	1.3	15.3	13.9
농사용	1,551	139	89	1,399	128	91	10.9	8.6	(2.1)
가로등	255	44	172	275	44	161	(7.5)	(0.7)	7.4
심야전력	311	33	105	407	40	99	(23.6)	(19.4)	5.5
	26.06			26.05			MoM(%)		
	발전설비용량 (MW)	발전전력량 (GWh)	가동률 (%)	발전설비용량 (MW)	발전전력량 (GWh)	가동률 (%)	발전설비용량 (MW)	발전전력량 (GWh)	가동률 (%p)
합계	159,413	47,829	41.7	159,095	45,546	38.5	0.2	5.0	3.2
Nuclear	26,050	14,264	76.1	26,050	14,236	73.5	-	0.2	2.6
Coal	40,767	15,511	52.8	40,767	12,079	39.8	-	28.4	13.0
LNG	46,276	11,025	33.1	46,276	11,661	33.9	-	(5.5)	(0.8)
Oil	162	3	2.6	162	3	2.5	-	-	0.1
Water	6,516	605	12.9	6,516	644	13.3	-	(6.1)	(0.4)
Renewable	39,112	6,267	22.3	38,793	6,761	23.4	0.8	(7.3)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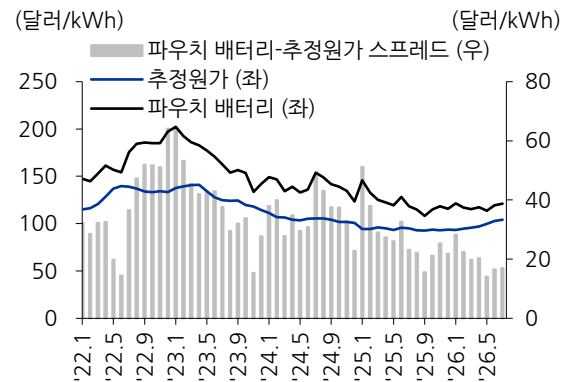
자료: 한국전력, 유진투자증권

도표3. 배터리 가격 및 원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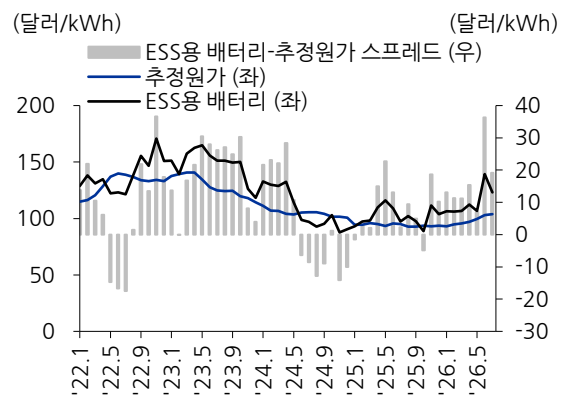
자료: KITA, 유진투자증권

도표4. 파우치 배터리 가중평균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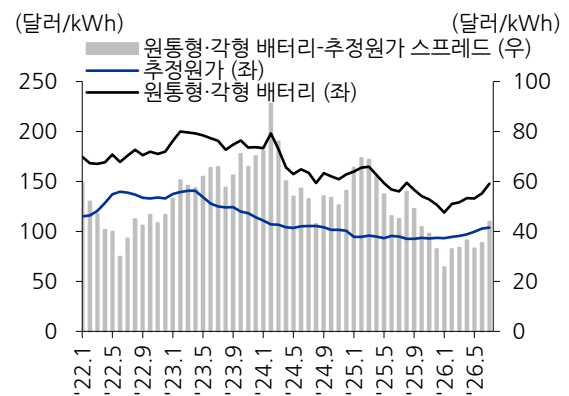
자료: KITA, 유진투자증권

도표5. ESS 배터리 가중평균 스프레드



자료: KITA, 유진투자증권

도표6. 원통형 배터리 가중평균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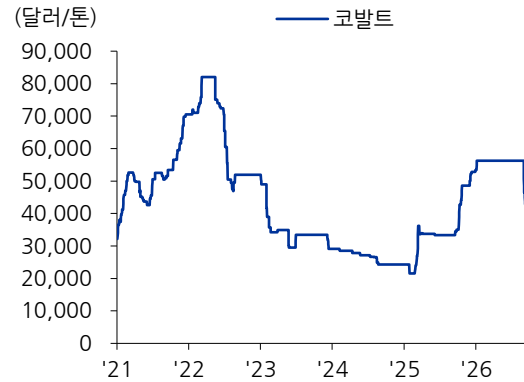
자료: KITA, 유진투자증권

도표7. 니켈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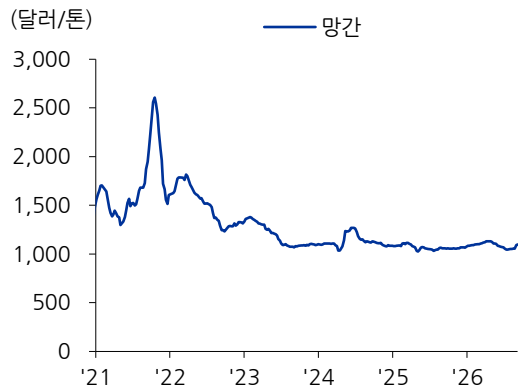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8. 코발트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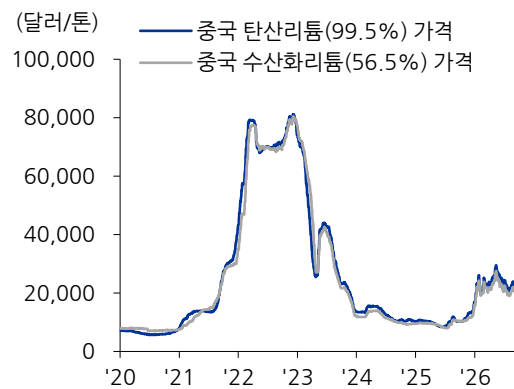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9. 망간 가격 추이



자료: KOMIS, 유진투자증권

도표10. 리튬 가격 추이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11. 알루미늄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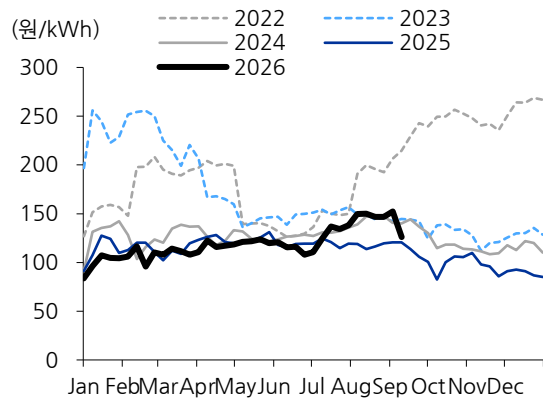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12. 구리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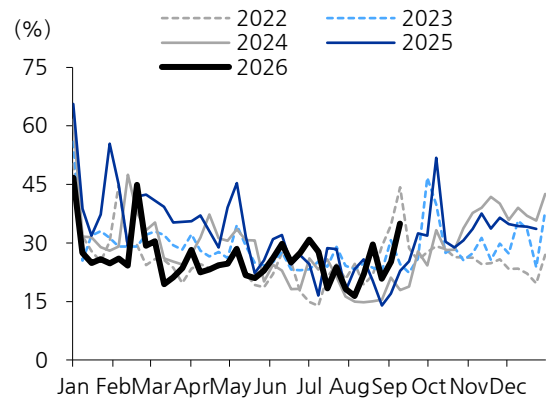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13. SMP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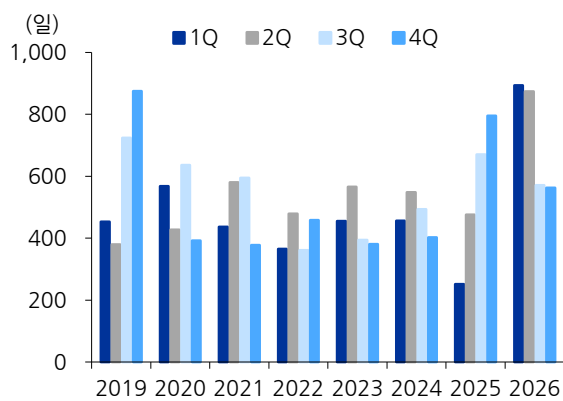
자료: 전력거래소, 유진투자증권

도표14. 주간 평균 전력공급 예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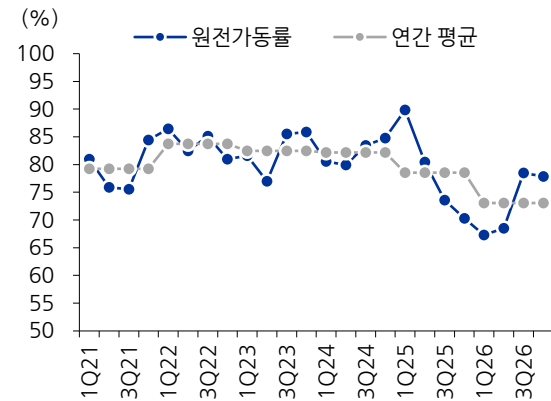
자료: 전력거래소, 유진투자증권

도표15. 원전정비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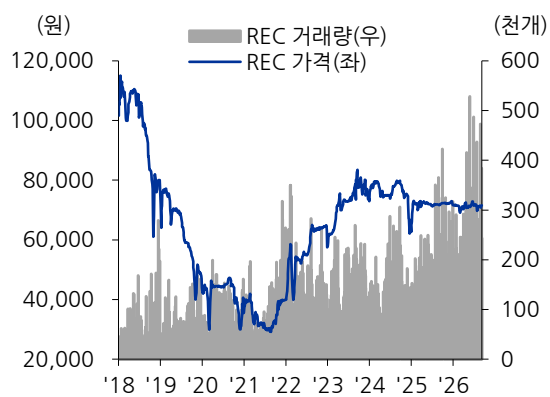
자료: 한국수력원자력, 유진투자증권

도표16. 원전가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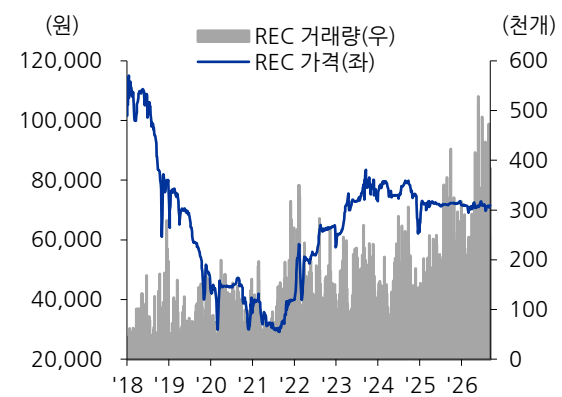
자료: 한국수력원자력, 유진투자증권

도표17. REC 거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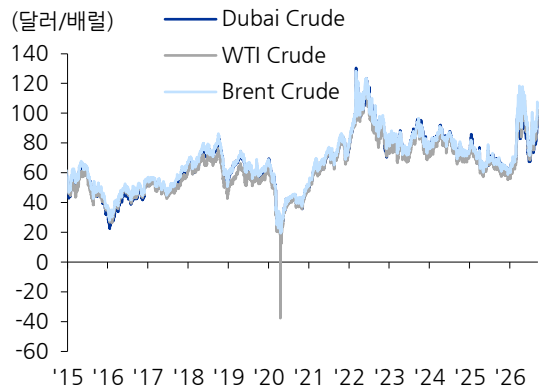
자료: 한국거래소, 유진투자증권

도표18. ETS 거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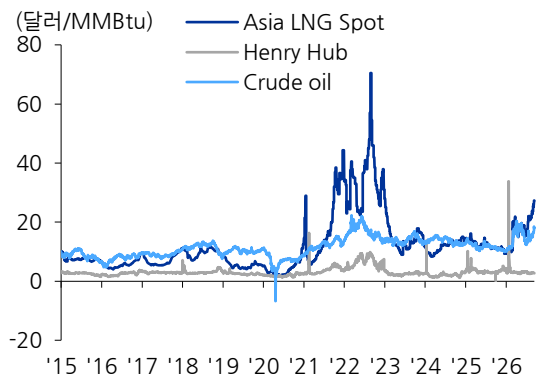
자료: 전력거래소, 유진투자증권

도표19. 국제유가 추이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20. 국제 에너지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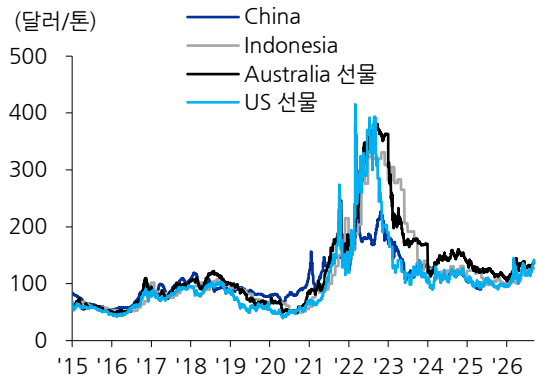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21. 원/달러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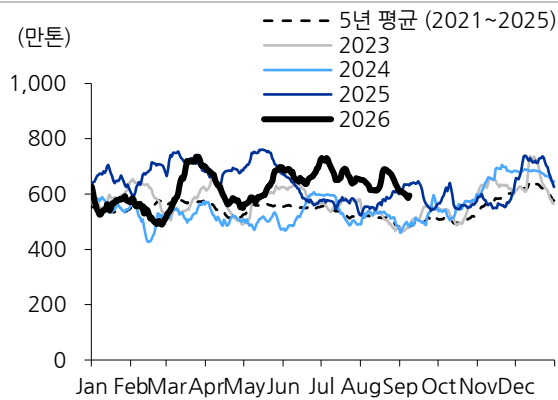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22. 지역별 석탄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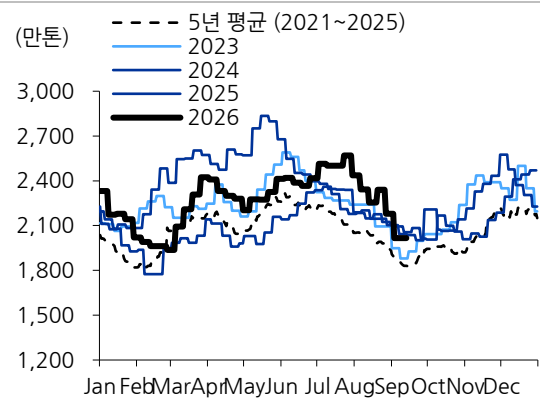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23. 중국 Qinhuangdao 항 석탄 재고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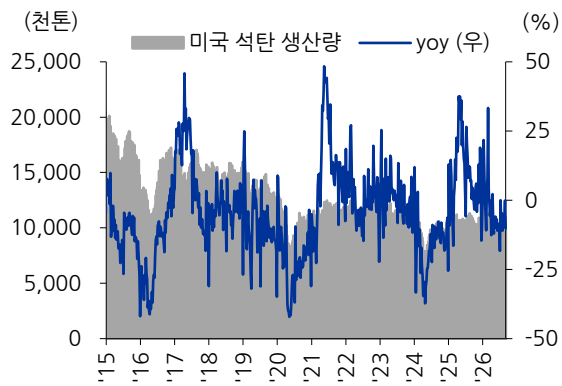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24. 중국 발전용 석탄 재고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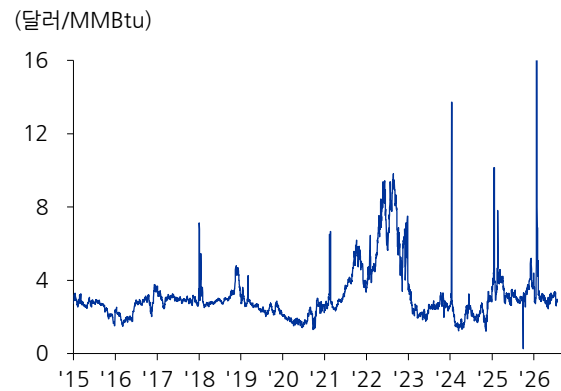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25. 미국 석탄 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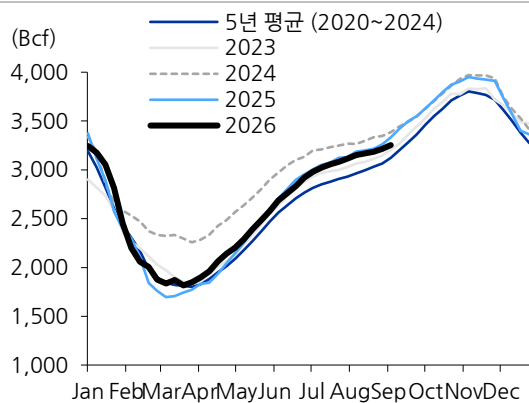
자료: EIA, 유진투자증권

도표26. 미국 Henry Hub 천연가스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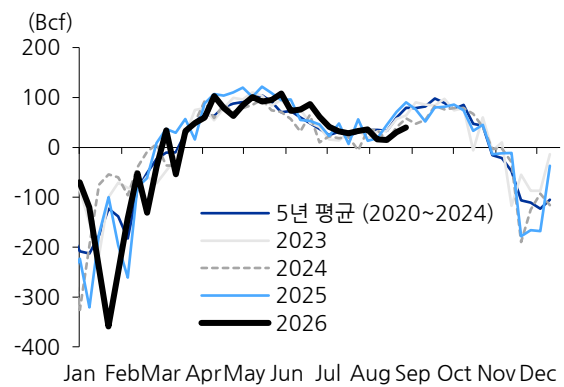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27. 미국 천연가스 재고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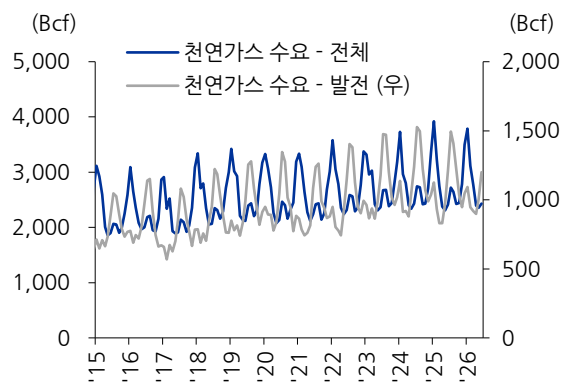
자료: EIA, 유진투자증권

도표28. 미국 천연가스 재고 주간 변화량



자료: EIA, 유진투자증권

도표29. 미국 천연가스 전체 및 발전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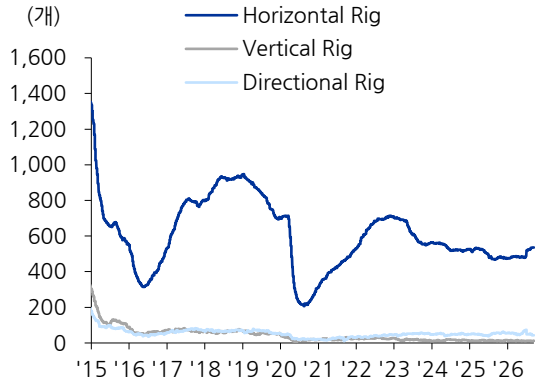
자료: EIA, 유진투자증권

도표30. 미국 천연가스 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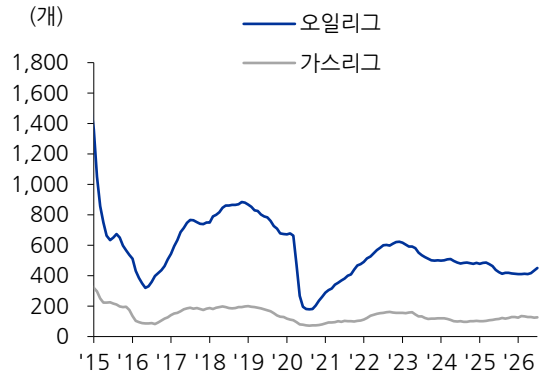
자료: EIA, 유진투자증권

도표31. 미국 천연가스 시추 수평, 수직 리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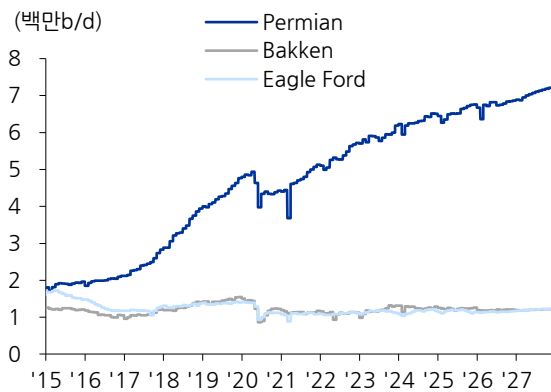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32. 미국 원유, 가스 리그 수



자료: EIA, 유진투자증권

도표33. 미국 주요 셰일오일 생산량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34. 일본 원유 도입가격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성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 동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3%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4%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3%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6.06.30 기준)